

유산 연구와 박물관학에서의 무형문화유산의 맥락화
Contextualis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Heritage Studies and Museology

마릴레나 알리비자투(Marilena Alivizatou)



유산 연구와 박물관학에서의 무형문화유산의 맥락화

● 마릴레나 알리비자투(Marilena Alivizatou)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niversity College London) 박사 과정

개요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 유네스코 인턴 시절과 박사학위 과정 초기에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유산 연구와 박물관학의 학제 간 연구의 무형문화유산의 맥락화와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하려 한다. 필자는 1950년대와 1960년대 일본과 한국의 법률 제정과 함께 시작된, 보다 최근에는 유네스코의 중재로 이어진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용어의 개념화를 검토했다. 또한 '대안적 유산 담론'과 '신 박물관학 담론'에 관한 학술적/지적 논의의 차원에서의 무형문화유산의 개발을 평가해보았다. 마지막으로, 2006년과 2007년에 있었던 패트릭 보일런(Patrick Boylan) 교수, 리처드 쿠린(Richard Kurin) 박사, 랄프 레겐바누(Ralph Regenvanu) 등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필자는 무형문화유산이 유산 및 박물관의 이론과 실천에 미치는 보다 광범위한 영향과 관련하여 일차적 판단들을 내릴 수 있었다. 다음으로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개념화와 사용, 그리고 '보편주의'와 '개별주의'의 접점에서 새로운 유산 담론을 구성하는 무형문화유산의 잠재력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보았다.

서론

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의 개념은 유산 관련 용어 중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용어인 동시에, 가장 유명한 용어일 것이다. 고고학자와 문화 인류학자에서 법률가와 과학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과 관련되는 이 주제를 놓고 수많은 콘퍼런스, 심포지엄, 세미나, 출판 등이 진행되어 왔다.¹ 이 새로운 학제 간 연구 실행 분야가 전 세계적으로 탄력을 얻고 있는 반면, 이 개념을 이론화하고 유산 연구와 박물관학 분야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지적, 운영적 영향력을 예측해주는 전체론적 접근의 실체는 부재해 보인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많은 연구가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을 이끌어낸 유네스코를 의식하면서 이루어져왔다. 이에 영향을 받아 2004년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박물관협의회 총회(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는 다양한 전공의 박물관 전문가들이 모여 이 주제를 다루는 자리가 되었다. 이 회의에서 나온 기고문 중 다수는 국제저널 『무형유산』 1권에 게재되어 전 세계 박물관과 문화기관들이 무형문화유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례와 사례 연구들을 보여주었다. 이 논문은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이 개념을 유산 및 박물관 연구에 대한 최근의 학술적 논의 내에 두고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 사안은 다음과 같다: 어떻게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이 국제적으로 등장했으며 어떠한 도덕적/윤리적 영향을 갖고 등장했는가? '대안적 유산 담

론(Butler 2006)' 및 '신 박물관학 담론(Kreps 2003)'과 관련한 문화유산 영역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위치는 어디인가?

필자는 먼저 유네스코의 유산 사업에서 이 개념이 등장하는 주요 단계들을 되짚어 보았다. 필자는 일본과 한국의 유산 개념화에 깊이 자리 잡은 유네스코의 중재를 통한 무형문화유산의 지적 개발에 대해 검토했다. 구조 민족지학(salvage ethnography, Alivizatos 2007)과 종종 비교되어 온 문화상대주의와 세계 윤리의 조화를 요청한 유네스코의 자기모순과 관련하여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초기 이론적 기반의 일부를 파악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다음으로 필자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이러한 제도적 접근을 보다 최근에 유산 연구와 박물관학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들과 병치시켜보았다. 여기서 사용된 주요 이론 모델로는 버틀러(Butler)의 대안적 유산 담론(2006)과 크렙스(Kreps)의 신 박물관학 담론(2003) 등이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이론적 개념화에 대한 보다 비판적인 관점을 가져오기 위해 최근의 학술적/지적 프레임워크의 관점에서 무형문화유산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론적 기초를 검토한 후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이 박물관과 문화유산 기관의 전통적인 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필자는 2006년과 2007년에 이루어진 런던 시티 대학 패트릭 보일런 교수, 스미스소니언 민속문화유산센터의 리처드 쿠린 박사, 바누아투 문화센터의 랄프 레겐비누와의 인터뷰 내용을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의 영향력을 평가해 보고자 했다. 여기에서는 무형문화유산과 그 상호 연결의 서로 다른 개념화에 대한 비판적이고 다면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1부: 무형문화유산과 유네스코 유산 사업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하여 최초로 법적, 행정적 정책을 수립을 요청한 국가는 1973년 볼리비아였지만, 유네스코가 무형문화유산 활동을 시작하도록 유도하고 영감을 준 것은 1950년대와 1960년대 일본과 한국에서 추진된 법률의 제정이었다. 일본에서는 동산 및 부동산인 기념물, 유적지, 예술품 등의 형태를 띤 유형유산의 보호와 함께 1950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통해서 2차 세계 대전 후 급속한 복구화로 인해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재'의 보호를 특별히 언급했다(Saito 2005:3). 한국에서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라는 명칭으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Yim 2004:11). 이러한 점에서 생활 전통문화, 그리고 그와 연관된 지식과 기술이 국가 유산 및 정체성

의 구성 요소로서 인정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다음 세대를 위해 보존되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일본과 한국의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의 기저에 있는 철학과 근거는 국가 유산은 기념물, 유물, 유적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 표현들도 포함한다는 사상이다. 이러한 과거에서 현재로 전승되어 오는 살아있는 문화 표현들은 근대화로 인해 위협을 받는다. 따라서 국가가 중재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66년 일본에서는 노가쿠, 분라쿠, 가부키와 같은 전통 공연 예술의 보존과 진흥을 위해 국립극장이 설립되었다(Saito 2005:6). 일본과 한국의 경우처럼 분명히 무형문화유산의 개념화가 지니는 특징 중 하나는 무형문화유산이 민족과 문화의 정체성을 정의하는데서 지니는 의미 뿐 아니라, 무형문화유산의 손상되기 쉬운 성질 그리고 현대적 생활 방식에서 비롯되는 위협이다.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이러한 접근들은 1990년대에 추진된 유네스코의 프로그램과 활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 일례로 전통 기술의 계승을 위한 일본의 국가 제도로부터 영감을 얻어 1993년에 마련된 '인간문화재 프로그램(Living Human Treasures Programme)'이 있다.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사업과 관련하여 유네스코 용어집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는 '전통문화'와 '민속'이다. 1989년 유네스코는 각국 정부가 전통문화에 대한 위협에 보다 민감하게 대처하도록 권고하기 위해 전통문화 및 민속의 보호를 위한 권고안(Recommendation for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 권고안은 회원국들의 활동에 별달리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Aikawa 2004:140), 그 이유 중 하나는 용어의 사용에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전통문화'라는 용어와 나란히 사용되는 '민속'이라는 용어가 다수의 비유럽권 유네스코 회원국에 대해 경멸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Seeger 2001) 식민주의 사상과 지배를 상기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권고안은 문화적 또는 사회적 활동보다는 사회적 과정의 결과에 오히려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피상적인 권고안으로 평가되었다(McCannet 외 2001). 이러한 점에서 이 권고안은 '생산자'보다는 '생산품'에 역점을 두었다는 비판을 받았다(Aikawa 2004:140).

1999년에 유네스코가 스미스소니언 민속문화유산센터와 협업하여 개최한 '전통문화 보호에 관한 콘퍼런스(Conference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s)'기간 중 이 1989년 권고안의 약점들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 주제에 대한 보다 전체론적이고 역동적인 정의

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유네스코가 문화 표현들의 문서 보관 및 문서화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지지를 얻는 데 보다 역점을 두어 이들이 문화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Kirshenblatt-Gimblett 2004:48).

2001년 3월 토리노 라운드 회의, 2002년 1월 리우데자네이루 전문가회의, 2002년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용어집 출간과 같은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에 관한 후속적인 협의들을 통해 다양한 지리적, 문화적 맥락에서의 용어 사용 범위,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용어와 유형유산과의 관계, 그리고 문화 표현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van Zanten 2004). 상기 회의들을 통한 최종 결과로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2003)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의가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다.

‘무형문화유산’이란 지역 사회, 단체, 그리고 일부의 경우 개인들이 그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로서 인정하는 관행, 묘사, 표현, 지식, 기술, 그리고 이것들과 연관된 도구, 물건, 공예품, 문화적 공간 등을 의미한다. 세대 간에 전승된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지역 사회와 단체들에 의해 이들의 환경, 자연과의 상호 작용, 역사 등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조되며, 이들에게 정체성과 연속성을 제공하여 문화 다양성과 인간의 창의성에 대한 존중심을 높여준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다음의 영역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 a. 무형유산의 매개체로서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 b. 공연 예술
- c. 사회적 수행, 의례, 축제
- d.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수행
- e. 전통 장인 기술 (유네스코 2003)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2003)의 채택은 문화유산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도모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알려지게 되었다(Mat-sura 2004:4; Bouchenaki 2004:6). 1972년 채택된 세계유산협약의 문화유산 정의에는 주로 기념물, 건축물과 유적, 그리고 자연 유산을 보여주는 자연 현상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새로운 정의는 유산에 관한 ‘고정된’, ‘기념물적’인 이해에서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이해로의 변화를 보여준다. 유네스코 무형유산국(UNESCO Intangible Heritage Section)의 국장은 2003년의 협약이 1972년 세계유산협약의 자매 문서임을 인정했다(Smeets 2004:39). 그러나 한편,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두 개의 법률 문서의 존재는 ‘유형/세계유산국(Tangible/World Heritage Section)’과 무형유산국(Intangible Heritage Section) 사이의 제도적 양분을 보여준다.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에 대한 보다 통합된 접근을 위해 유네스코 내부에서도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파리 유네스코 본사의 물리적 공간 내에서도조차 – 간극은 여전히 크다.

영향과 우려

무형문화유산의 개념화와 사업에 대하여 유네스코가 선택한 방식은

문화 영역에 대한 유네스코의 보다 광범위한 입장을 고려하여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무형문화유산 담론은 유네스코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전략적 계획 수립의 영역 내에서 등장했다.² 이처럼 유네스코는 인권의 존중과 보호에 뿌리를 둔 유네스코의 보편적 비전과 세계의 다양한 문화의 특수성과 복수성을 서로 조화시켜야 하는 자기 모순적인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순은 인류학자들에 의해 비판적으로 평가되어왔다.³ 앞으로의 과제는 무형문화유산이 새로운 유산 담론으로서 ‘문화 상대주의’와 ‘세계 윤리’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다시 무형문화유산 담론이 문화를 보호되어야 할 전통으로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전통으로서 이해할 것인지에 관한 일련의 질문들을 불러일으킨다.

지금까지 무형문화유산은 일본, 한국, 유네스코 등에 의해 추진된 법률의 제정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살아있는’, 그리고 ‘쉽게 사라지는’ 특성으로 인해 근대화와 세계화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서 개념화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네스코의 프로그램과 활동은 전통문화는 서구 문명의 등장으로 소멸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보호하는 것이 자신들의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한 20세기 초 민족지 학자들 사이에서 유행한 ‘구조 민족지학과 종종 비교된다(Penny 2002). 오늘날 이러한 사상들은 자신들의 문화의 역동성과 연속성을 찬양하는 원주민 집단들의 맹렬한 도전을 받고 있다(Hendrix 2005).

이러한 ‘구조 민족지학’, 또는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호’의 사상에는 ‘고정’과 ‘고착화’의 개념이 내재해있다. 이러한 점에서 살아있는 문화 표현을 위한 정책의 채택이 그들의 발전을 저해하고 동시대의 사회로부터 그들을 더욱 분리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이 표출되어왔다. 유네스코가 무형문화유산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프로그램, 기록 보관소, 녹화 등을 통한 살아있는 문화의 제도화는 여전히 무형문화유산을 공간과 시간안에 ‘동결’시켜버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해 1999년 스미스소니언 콘퍼런스에서 ‘사람(folk)이 없는 민속(folklore)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제임스 얼리(James Early)의 의견은 향후 무형문화유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단계로 인식된다. 따라서 유산 보호의 절차에 있어서 실제 지역 사회의 참여는 유네스코 활동의 기본 원칙으로서, 그리고 살아있는 유산의 생존력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인정되어왔다.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개념화의 또 다른 특징은 유형유산과 무형유산 사이의 제도적 분리와 양분이다. 이 두 용어 사이의 상호 연결성이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의에 강조되어 있지만, 문화유산에 대한 보다 전체론적인 접근에 관한 광범위한 비전은 여전히 결여되어있다. 이것은 유형유산을 ‘죽은’ 또는 ‘기념물적인 문명’으로 규정하고 무형유산을 ‘살아있는’ 문화로 표현하는 제도적 분리와 양극화를 야기한다. 따라서 유네스코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형문화유산 담론과 프로그램의 생산은 소멸의 두려움으로 인해 보호되어야 하는 문화에 대한 ‘보호 활동’적 접근 방법을 드러낸다.

2부: 무형문화유산과 유산 논쟁의 '인류학적'

1990년대 유네스코의 운영 영역 내에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이 등장한 것은 문화라는 개념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에 기반을 둔 문화유산의 이해를 보여준다(Bouchenaki 2004; Kirshenblatt-Gimblett 2004). 이처럼 무형문화유산은 유산 논쟁의 '인류학적'과 '인간화'에 대한 학술적/지적 요청과 함께 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Butler 2006; Rowlands 2002).

데이비드 로웬덜(David Lowenthal)의 저서 '과거는 낯선 나라다'(The Past is a Foreign Country)가 출간되고, 출간 이후의 논의들(Ingold 1996:201-245)을 통해 '역사적 접근 방식'에 내포된 주류 서구 유산 규범에 의해 주로 지배되던 문화유산의 이해에 '인류학적' 관점이 도입되면서부터 이러한 요청은 보다 거세어졌다. 버틀러는 문화유산 개념과 과거 경험하기에 대한 '인류학적' 또는 '기념적' 접근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에 따라 유럽 중심의 유산 이해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러한 논쟁을 사용한다(2006). 이처럼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은 대안적 문화 개념화로서 그리고 과거의 물질적 차원들의 보전이라는 서구의 집착에 반대하여 등장한다. 다시 말해, 무형문화유산은 단체와 지역사회에 의해 끊임없이 재창조됨으로써(유네스코 2003년) 과거는 재생 가능한 자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Holtorf 2001).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은 '진정성'의 가치 위에 세워진 유럽 중심의 유산 규범에 대한 집착과 문화유산의 회복 불가능성에 대한 대안적 담론으로서 등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무형문화유산은 과거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방법으로서의 '기억', '구전 전통', '수행' 등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대안적 유산 담론' 또는 '기념적 접근'(Ingold 1996:202)과 관련이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과거는 낯선 곳이 아니라 오히려 기억을 통해 살아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육체와 정신 내부에 존재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리-하닉(Feeley-Harnik)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과 재회하는 풍경, 길, 장소 등의 이미지를 환기시키는 칼룰리 장례식과 기살로 의식(Kaluli funerals and gisalo ceremonies)의 우는 '새소리말(bird sound word)' 노래와 같이 과거를 경험하는 비서구적 접근 방식에 대해 언급한다(1996:215-216).

더욱이, 이러한 '기념적 접근'은 사물의 해석과도 관련이 있다. 예컨대, 말랑간(malanggan)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뉴아일랜드섬의 장례용 인형에 관한 수잔 쿨러(Suzanne Kuechler)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힌다.

이 물건들은 숲 속에 버려지거나 교환되면서 시야에서 사라질 때 활발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감각으로 기억에 영향을 준다(2002:7). 이 물건들의 제작자들은 미래의 환영으로서 과거로의 접근을 결정하는 지명된 이미지들을 보여주는 능력을 이 물건들의 물질성보다 더 중요시하는 듯하다(위의 책).

여기에서는 분명 의식을 수행하는 동안의 그 사물의 '수행'과 미래에서 과거를 기억한다는 점에서의 '재생' 잠재력은 그 사물의 '내구성'보다 더 중요하다. 이와 같이 사물의 물질성과 그 수행은 불가분이다.

따라서 '기념적' 유산 담론 안에서 '기억', '수행', '구전 문화' 등으로 표현되는 무형문화유산은 과거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이러한 대안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세대를 위한 물질적 유산의 보전이라는 서구의 집착에서 벗어나, 무형문화유산은 '살아있는 유산'의 사상을 가져온다. 이처럼 무형문화유산은 문화유산을 죽은 과거의 유물이 아닌, 현세대에 의해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새로 교체되는 과거와의 연결점을 제공하는 절차들과 실행들의 단위로서 그려내고 있다. 여기에는 '사물'에의 집착에서 '사람'에 대한 높아져가는 관심으로의 이행이 관찰될 수 있다. 따라서 유산과 유산 가치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질문의 답변으로서 무형문화유산은 '진정성'보다는 '변화'를, 그리고 '보존'보다는 '개선'을 선호한다.

문화유산의 '인간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들은 박물관 분야에서 발견된다.

1947년에 출간된 앙드레 말로(Andre Malraux)의 상상미술관(Musee Imaginaire)은 어떻게 개개인이 박물관과 소장품들을 소유할 수 있는지를 인정한 초기 작품들 중 하나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영국의 신 박물관학(New Museology, Vergo 1990)과 프랑스의 신박물관학(Nouvelle Museologie, Riviere 1989)의 등장은 박물관의 배타적인 성격을 인정하고 보다 사람 중심적인 박물관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박물관의 전통적인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사람 중심의 변화는 '생태박물관(ecomuseum)'의 개념으로도 발전되었다(Davis 1999; Poulot 2006). 1970년대 프랑스에서 개발된 '생태박물관'은 사람과 환경을 연결하고 사람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구축하며, 이들의 유산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Fernandez de Paz, 2003:39). 보일런(Boylan) 교수는 '생태박물관들이 사물보다는 문화 환경에 보다 관심을 두기 때문에 어떻게 무형문화유산이 생태박물관에서 비옥한 땅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관찰해왔다(2006a:57).

21세기 벽두에는 '신 박물관학'과 '생태박물관'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후기 박물관(post-museum, Hooper-Greenhill 2000)'과 '시적 박물관(Spalding 2002)' 등과 같은 대안적 박물관 개념들이 '고전적' 또는 '근대적' 박물관들을 대체하기 위해 등장했다. '후기 박물관'은 우선적으로 공예품과 관련된 기억, 노래, 문화 전통 등에 관심을 두는 반면(Hooper-Greenhill 2000), '시적 박물관'은 박물관 소장품의 보다 심오하고 규정하기 힘든 의미들을 찾아내는 데 역점을 둔다(Spalding 2002:9). 이러한 점에서 이 두 박물관 개념은 물질적 형태로 구현되지 않은 요소인 사물의 무형적 차원들을 탐구하고 끌어내는 데 관심을 가진다. 공예품의 물질적 속성 너머를 탐구하려는 이러한 의지는 수집품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새로운 접근 방법들을 제시해 줄 무형문화유산 개념의 잠재성을 보여준다.

크리스티나 크렘스(Christina Kreps)는 신 박물관학 담론(2003:145)과 박물관 '큐레이터의 역할'의 대안적 유형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이 박물관학에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들을 검토했다(2005). 이처럼 그녀는 사람들이 지닌 문화유산을 구성하는 사물들의 보전에 관한 전통적인 지식을 언급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을 사용한다. 그녀는 또한 무형문화유산의 표현으로서의 원주민 큐레이터 활동이, 역동적인 무형 문화를 위한 관리자 및 큐레이터의 역할을 박물관에 부여해주는 (말단에서부터 시작되는) 상향식 참여 접근 방법을 구성함을 인정한다(2005:7).

상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제도적 유산 담론과 학술적/지적 유산 담론에 의한 무형문화유산의 개념화 사이에는 식별 가능한 차이가 명백히 존재한다. 유네스코 내에서는 유형 유산과 무형 유산 간의 양분이 존재하는 반면, 학술적/지적 담화 대상들을 보면 공간과 인간의 표현은 서로 맞물려 있으며 상호의존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더욱이 유네스코 담화가 문화에 대한 '보호 활동가'로서의 접근을 보여주는 반면, 학술적/지적 논의들은 다원적, 혼합적인 다양한 문화 전승의 유형들이 '전통적'인 틀 안에만 한정될 필요가 없음을 인정한다.

3부: 유산 연구와 박물관학을 위한 새로운 개념적 틀로서의 무형문화유산

앞서 1부와 2부에서 필자는 유네스코의 제도적 담론과 학술적/지적 논의 내에서의 무형문화유산의 등장에 대한 광범위한 이론적 맥락을 검토해보았다. 3부에서는 지난 수 년간 무형문화유산 논쟁의 주인공들이었던 패트릭 보일런 교수, 리처드 쿠린 박사, 랄프 레겐바누 세 사람의 의견을 자세히 소개한다.

필자는 2006년 10월 레스터 박물관에서 보일런 교수를 만났다. 그는 수십 년 전부터 유네스코, ICOM, 그리고 국제 유산 분야의 활동에 참여해왔다. 이러한 이유로 무형문화유산의 등장에 대한 그의 의견이 필자의 연구에 특히 중요했다. 보일런 교수는 무형문화유산 자체는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영국의 사바인 바링-골드(Sabine Baring-Gould) 목사, 세실 샤프(Cecil Sharp), 보건 윌리엄스(Vaughan Williams), 헝가리의 벨러 버르토크(Bela Bartok) 등과 같은 다양한 개인들이 노래, 찬송가, 춤 등을 수집했던 20세기 초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무형문화유산이 현재 주목을 받는 것은 유네스코가 문화 보호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이라고 덧붙이며, 고이치로 마쓰우라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일본의 무형유산기금의 핵심적인 역할에 대해 특별히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2004년 서울에서 열린 ICOM 총회에서 다수의 ICOM 위원회가 그들의 작업과 무형문화유산의 관련성을 발견했다고 말한다(2006/10). 이러한 점에서 그는 이 총회가 박물관 활동에 대한 무형문화유산의 높은 잠재력을 박물관 업계에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음을 인정했다(2006/10).

리처드 쿠린 박사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스미스소니언 민속문화유산센터(이하 민속센터)의 감독이다. 필자는 랑팡 플라자(L'Entant Plaza)에 위치한 센터에서 그를 만났다. 쿠린 박사는 유네스코와 민속센터 간에 이루어지는 협업의 역동성을 매우 유창하게 설명하면서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의견뿐 아니라 정통성과 명성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2007/05). 그는 또한 2003년 협약에서 미국이 기권한 것은 무역 사무소(The Pattern and Trade Office)가 지식재산권의 추락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했다(2007/05). ICOM 2004년 총회에 대해서 그는 서울에서의 대부분의 논의와 연설은 거의 응원이 가까웠다고 하면서(2007/05), 무형문화유산을 다루는 작업은 박물관에 있어서 힘든 일이 될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이 작업은 단순히 공예품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학(social engineering) 활동에 관한 문제며, 따라서 박물관들은 생각의 벽을 허물고 그들이 대표하려는 해당 공동체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바누아투 문화센터 전 관장인 랄프 레겐바누는 2007년 5월 그의 파리 방문 시 필자의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무형문화유산의 등장과 관련하여 그가 먼저 언급한 것 중 하나는 무형문화유산이 서구 역사 전통의 영향을 받은 과거의 유네스코 협약들에 반대하는 비유럽권의 우려를 반영했다는 사실이다(2007/05). 마찬가지로 그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광의의 개념이 사물, 기념물, 문화 또는 자연 현장 등을 포괄한다고 보고 무형문화유산의 등장을 유네스코의 탈식민지적 전환과 연관 지었다. 박물관과 유산 기관에 대해서 그는 박물관이 무형문화유산에 관여하려면 완전하고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2007/05). 유럽의 박물관에 대해 그는 이 박물관들이 무형문화유산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희망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들은 식민지 시대의 짐이 무척 많아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변화와 개혁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2007/05). 그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문화센터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태평양 지역 박물관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2007/05).

위의 인터뷰들을 종합해 볼 때, 문화유산과 박물관 연구를 위한 새로운 개념적 틀을 구성해 줄 무형문화유산의 잠재력과 관련한 몇몇 주요 주제들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모든 인터뷰 대상자들이 무형문화유산 개념의 포괄적 성격을 강조했다. 이 개념은 연주나 노래와 같은 개별 항목이 아닌 보다 광범위한 과정들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점에서 레겐바누는 무형문화유산을 단순히 문화적 표현 또는 전통 지식이라기 보다는 살아있고 진화하는 상호작용의 과정으로서 표현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2007/05). 이와 같은 어조로 쿠린 박사는 무형문화유산은 단순히 예술과 공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민족들의 삶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별개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며(2007/05), 호주 애버리지니인들의 토지에 대한 지식은 호주 애버리지니인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덧붙여 언급했다. 무형문화유산은 단순히 관습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관련이 있다(2007/05).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은 분리될 수 없다는 보일런 교수의 주장(2006/10)은 문화유산의 개념화에 있어서의 유형과 무형의 불가분성뿐만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주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다 복잡한 관점을 시사하고 있다.

인터뷰에 나타난 두 번째 주제는 무형문화유산의 개념화에 있어서 결정적 요소 중 하나인 공동체의 참여이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국가의 개입이 무형문화유산의 '형식화'와 '관료화'를 부추길 수 있으며 그 결과로서 해당 공동체들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보일런 교수는 진정성(authenticity)에 관한 유네스코의 편협한 시각이 어떻게 공동체들의 반감을 살 수 있는지를 관찰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레겐바누는 다음과 같이 다소 자극적인 발언을 한다.

어떠한 전통을 전승하고 실천하는 존재인 공동체가 금전적인 목적으로 전통에 변화를 가져오려 한다면 이는 전통의 왜곡인가? 아니면 이들 공동체가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말하는 박물관, 유네스코 또는 인류학자들의 개입이 실질적인 왜곡일까? (2007/05).

이러한 맥락에서 누군가 문화를 박물관이나 기록 보관소에 넣어둔다고 해서 문화가 보존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는 그 사회 속에 살아있을 때 보존된다. 문화는 실제적이며, 문화는 살아있다(2007/05)고 말

한 쿠린 박사의 의견은 무형문화유산의 개념과, 이 개념이 존재하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정치적 맥락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인터뷰에서 나온 세 번째 주제인 무형문화유산이 박물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의 문제로 이어진다. 박물관들이 '사회 공학'에 관여하라는 쿠린 박사의 요청은 문화를 대표하는 활동에 대한 새로운 역할과 방향을 보여준다(2007/05). 그는 2004년 ICOM 총회에서 무형문화유산이 무비판적으로 지지와 환영을 받은 것은 박물관 전문가들이 무형문화유산에 개입함으로써 생길 도전들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작업은 공예품을 창고에 넣어 보존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계속해서 영유해나 가도록 돕는 것이다(2007/05). 레겐바누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서구 박물관들의 무능을 일컬으며, 무형문화유산은 장소, 자원, 그리고 명백히 공동체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공동체들은 이들 박물관에 살고 있지 않다(2007/05)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대안으로서 그는 바누아투 문화센터의 활동을 언급했다. 이 센터는 공동체와 함께 있으면서 살아있는 문화의 여러 양상들을 수집하고 기록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바누아투 사람들에게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점과 전통과 서구 지식을 결합해야 하는 필요성 등을 알리고 가르치는 데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보일런 교수도, 무형문화유산이 살아있는 문화를 수집하고 수집품들을 맥락화하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의 동시대적 이슈들을 다루는 것에도 박물관들에 새로운 역할을 제안하고 있음을 인정했다(2006/10).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 무형문화유산 개념의 사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드러난 지적, 운영적 과제들과 새로운 유산 담론을 구성하는 무형문화유산의 잠재력과 관련하여 몇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다양한 접근 방법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개념화 속에 내재된 모순들, 즉 한편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이 깨지기 쉽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모순이 드러났다.


1부에서 소개했듯이, 무형문화유산은 유네스코 유산 사업내에서 경멸적이고 지역주의적인 용어인 '민속'에 대한 '완곡한 표현'으로서 처음 등장했다. 그러나 학계와 공동체들과의 논의를 거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2003)에 채택된 무형문화유산의 보다 광범위한 정의를 따르고 문화적 사물과 공간을 참조하여 무형문화유산은 전통적으로 '민속'으로 여겨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하게 되었다. 흥미롭게도 유네스코의 이러한 새롭고 포괄적인 용어의 채택은 여전히 보다 통합적인 유형/무형 유산 프로젝트와 운영 체계를 통해 시행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반면에 필자가 2부에서 소개한 최근의 학술적/지적 담론들 내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이 보다 폭 넓은 유의미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무형문화유산은 '동결'되거나 그 맥락에서 분리될 수 없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나타나며, 최근에는 앞서 언급한 말랑간(malanggan)과 같은 '물질 문화'와 '살아있는 문화' 모두의 측면으로 존재

한다. 현대 박물관학적 접근의 관점에서 무형문화유산은 '원주민 큐레이터 활동', 즉 수집품의 보존과 해석과 같은 박물관 활동에 전통 지식 체계를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되어왔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은 위기에 처해 보호되어야 할 문화유산의 범주가 아닌, 오히려 유산 기관과 박물관의 새로운 역할이 그려질 수 있는 지적 체계로서 인식된다.

3부에서도 보일런 교수, 쿠린 박사, 레겐바누의 견해를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이러한 박물관과 유산 기관의 새로운 역할과 방향이 강조되었다. 이들 인터뷰 대상자 모두 무형문화유산의 작업은 박물관들이 사회에서의 자신들의 역할을 파악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방향,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한다는 사실에 동의한 것과 더불어, 공동체들을 박물관에 끌어들이고 박물관 활동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이처럼 '수집품을 위한 공전으로서의 박물관'은 '역동적인 문화센터로서의 박물관'으로 대체된다(West 2007). '사회 공학자'로서의 박물관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려면, 공예품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초점을 맞춘,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박물관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박물관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예전의 한 논문에서 보일런 교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본 계획은 박물관 직원들이 완전히 새로운 지식, 기술, 태도를 갖추 것을 요하며 이에 따라 직원 교육과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등도 그 내용과 방법 등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2006a:63).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은 무형문화유산이 과연 어떠한 조건에서 새로운 유산 담론으로서 진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다시 말해, '전통' 또는 '변화', '상대주의' 또는 '보편주의' 등과 같은 무형문화유산 개념화의 어떤 요소들이 승리하게 될지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유네스코가 보편적 인권이라는 윤리 영역 내에서 그 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지적/학술적 세계는 종종 유네스코 정책의 주변부에 있는 보다 살아있는 문화의 혼성적인, 경쟁을 거친, 변화하는 구성 요소들에 관심을 가진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새롭고도 전반적인 담론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를 예측하기에는 여전히 이르지만, 전 세계 박물관들이 무형문화유산에 접근하고 자신들의 활동에 무형문화유산을 포함시키려는 관심을 보이는 것은 살아있는 문화에 대한 큐레이터 활동과 관련한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기꺼이 찾아서 말하려는 박물관들의 의지를 보여준다. 과거를 개념화하는 데 있어 보다 포괄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이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을 통해 문화유산 담론이 매우 풍부해질 수 있었다. 따라서 박물관 분야에 있어서도 박물관 밖의 공동체들과 깊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공예품만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반영하는 문화적 표현에 있어서 박물관들은 이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부터 잠재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주석

- 1 2006년도 '분위기 느끼기: 무형유산 다루기'를 주제로 한 박물관 민족지 학자 그룹 연례 회의(Museum Ethnographers Group Annual Conference on 'Feeling the Vibes: Dealing with Intangible Heritage'), '유형-무형유산: 지속가능한 이분법?'을 주제로 케임브리지대에서 열린 제7차 연례 유산 심포지엄(7th Annual Heritage Symposium at the University of Cambridge on 'Tangible-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 Sustainable Dichotomy?') 2006년-2007년: 파리에서 열린 무형유산에 관한 '문화 협회 인류학 역사부(Laboratoire D'Anthropologie et D'Histoire de l'Institution de la Culture (LAHIC))'의 세미나 시리즈, 그 외 'Deacon, H., Dondolo, L., Mrubata, M., Prosalendis, S. 2004년, 무형유산의 미묘한 힘: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법적 금융적 수단(The Subtle Power of Intangible Heritage: Legal and Financial Instruments for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 케이프타운: HSRC Publishers.' 'Jade, M. 2006년, 무형유산: 유산 해석의 전망(Patrimoine Immaterial: Perspectives d'Interpretation du Concept de Patrimoine), 파리: L'Harmattan'.
- 2 다른 활동들 중 2001년 세계 문화 다양성 보호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Diversity)과 2005년 문화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 3 예컨대, '우리의 창의적 다양성(Our Creative Diversity)'에 관한 보고서 중 Thomas Hylland Eriksen의 비평 참조

인터뷰 목록

- Boylan, P. 2006. Interview conducted by the author on October 7th, at the Leicester Museum and Gallery.
- Kurin, R. 2007. Interview conducted by the author on May 18th, at the Center for Folklife and Cultural Heritage, Washington.
- Regenvanu, R. 2007. Interview conducted by Ana Maria Stan on May 21st, at UNESCO Headquarters, Paris.

참고문헌

- Aikawa, N. 2004, 'An Historical Overview of the Preparation of the UNESCO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useum International, pp.221-222, 137-149.
- Alivizatou, M. 2007, 'The UNESCO Programme for the Proclamation of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A Critical Examination', Journal of Museum Ethnography pp.19, 34-42.
- Bouchenaki, M. 2004, Editorial, Museum International pp.221-222, 6-10.
- Boylan, P. 2006a, 'The Intangible Heritage: A Challenge for Museums and Museum Professional Trai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1, pp.54-65.
- Butler, B. 2006, 'Heritage and the Present Past', in Tilley, C., Keane, W., Kuechler-Fogden, S, and Rowlands, M. (eds) Handbook of Material Culture, London: Sage Publications, pp.463-479.
- Davis, P. 1999, Ecomuseums: A Sense of Place, London; New York: Leicester University Press.
- Eriksen, T. H. 2001, 'Between Universalism and Relativism: A Critique of the UNESCO Concept of Culture', in Cowen, J.K., Dembour, M.B. and Wilson, R. (eds) Culture and Rights: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27-148.
- Feeley-Harnik, G. 1996, 'Against the Motion' in Ingold, T (ed) Key Debates in Anthropology ('Debate: Is the Past a Foreign Country?') London, Routledge, pp.201-248.
- Fernandez de Paz, E. 2003, 'La Museologia Antropologica Ayer y Hoy', Cuadernos Tecnicos: Antropologia y Patrimonio: Investigacion, Documentacion e Intervencion 10, pp.30-47.
- Hendrix, J. 2005, Reclaiming Culture, Oxford, Palgrave.
- Holtorf, C. 2001, 'Is the Past a non-Renewable Resource?' in Layton, R., Stone, P. and Thomas, J. (eds) Destruction and Con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London, Routledge, pp.286-295. 54 Contextualis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Hooper-Greenhill, E. 2000, Museums and the Interpretation of Visual Culture, London, Routledge.
- Ingold, T (ed). 1996, Key Debates in Anthropology ('Debate: Is the Past a Foreign Country?') London, Routledge, pp.201-248.
- Kirshenblatt-Gimblett, B. 2004, 'Intangible Heritage as a Metacultural Production', Museum International, pp.221-222, 52-65.
- Kreps, C. 2003. Liberating Culture: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Museums, Curation and Heritage Preservation. London; New York: Routledge.
- Kreps, C. 2005, 'Indigenous Curation as Intangible Heritage: Thoughts on the Relevance of the 2003 UNESCO Convention', Theorizing Cultural Heritage 1 (2), pp.3-8.
- Kuechler, S. 2002, Malanggan: Art, Memory and Sacrifice, Oxford, Berg.
- Matsuura, K. 2004, Preface, Museum International, pp.221-222, 4-5.

- McCann, A., Early, J., Horowitz, A., Kurin, R., Prosterman, L., Seeger, A., Seitel, P. 2001, 'The 1989 Recommendation Ten Years On: Towards a Critical Analysis', in Seitel, P. (ed) *Safeguarding Traditional Cultures: A Global Assessment*, Washington: UNESCO; Smithsonian Center for Folklife and Cultural Heritage, pp.57–61.
- Penny, G. H. 2002, *Objects of Culture: Ethnology and Ethnographic Museums in Imperial Germany*, Chapel Hill; Lond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Poulot, D. 2005, *Musee et Museologie*, Paris, La Decouverte.
- Riviere, G. H. 1989, *La Museologie selon George-Henri Riviere : Cours de Museologie/ Textes et Temoignages*, Paris , Dunod.
- Rowlands, M. 2002, 'Heritage and Cultural Property', in Buchli, V. (ed) *The Material Culture Reader*, Oxford, New York, Berg Publications, pp.105–114.
- Saito, H. 2005,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Japan', in Sub-regional Experts Meeting in Asia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afeguarding and Inventory Making Methodologies, Bangkok, Thailand, December 13–15, pp.1–14. http://www.accu.or.jp/ich/en/pdf/c2005sub-reg_Jpn2.pdf [Accessed on 3 Dec 2006]
- Seeger, A. 2001, 'Summary Report on Regional Seminars', in Seitel, P (ed) *Safeguarding Traditional Cultures: A Global Assessment*, Washington, UNESCO, Smithsonian Center for Folklife and Cultural Heritage, 36–41.
- Smeets, R. 2004, 'On the Background, the Interpreta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Promotion of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inal Report of the 2004 ACCU Regional Meeting in Asia and the Pacific*, Osaka, Japan, 26 February–1 March, 2004, Osaka, Japanese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Asia/Pacific Cultural Centre for UNESCO (ACCU), pp.37–48.
- Spalding, J. 2002, *The Poetic Museum: Reviving Historic Collections*, Prestel, Munich.
- UNESCO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3/001325/132530e.pdf> [Accessed on 1 Dec 2003]
- UNESCO 2004, *Yamato Declaration on Integrated Approaches for Safeguarding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http://portal.unesco.org/culture/admin/file_download.php/Yamato_Declaration.pdf [Accessed on 3 Dec 2006].
- Van Zanten, W. 2004, 'Constructing New Terminology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useum International* pp.221–222, 36–44.
- Vergo, P (ed), 1989, *The New Museology*, London, Reaktion Books.
- West, R. 2007, Paper presented at the Symposium 'Memory and Universality: New Challenges Facing Museums', UNESCO, Paris, 05 February 2007.
- Yim, D. 2004, 'Living Human Treasures and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periences and Challenges', *ICOM News* 57 (4), pp.10–12.